

Canon 『제 5기 장애 사원 입사 환영식』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10. 7. 12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주)



## 캐논코리아의 'I Can Cell' 장애인 일자리 제공통해 사회공헌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대표 김천주)가 최근 장애인들이 직접생산해 전세계로 수출한 레이저복합기 MF4570dn을 장애인단체에 기증해 화제가 되었다. 이달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캐논코리아의 장애인생산공장인 'I Can Cell'에 대해 알아본다.

캐논코리아에서는 지난 2009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확대협약을 체결한 이래 꾸준히 장애인채용을 확대해왔다. 특히 보통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을 꺼려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캐논코리아의 경우 법정의무고용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용해 장애인고용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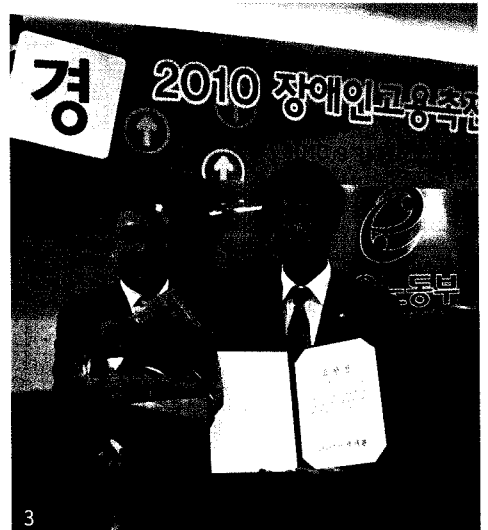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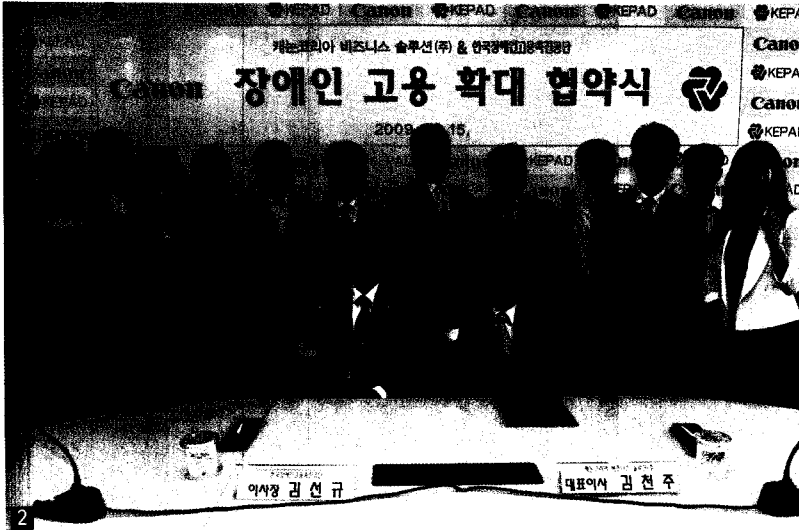
현재 캐논코리아의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인원은 24명이지만, 약 60여 명의 청각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한 계기에 대해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일회성 기부나 복지 수혜가 아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사회공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나눔 경영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나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그렇다면 이들 청각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I Can Cell'은 어떤 곳일까?

캐논코리아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맺은 장애인고용 확대협약의 실천프로그램으로,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3주간, 캐논코리아 안산공장에서 3주간의 현장실습과정을 거쳐 입사하는 것으로, 안산공장의 복합기 생산현장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9년 10월부터 63명의 청각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사실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셀에 대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내 생산 컨테스트에서 20개가 넘는 셀 중 1~2위를 차지하는 등 비장애인 이상의 업무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회사차원에서 작은 배려를 했다고 한다. 'I Can Cell'에서 일하는 장애사원 작업복에는 국제수화로 'I Love You'를 의미하는 마크를 부착해 같이 일하는 비장애직원들이 장애사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1. 제5기 장애시원 입사환영식. 2. 지난 2009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맺은 장애인 고용 확대 협약식. 3. 2010년 장애인 고용촉진 정부 포상 시상식.  
4.5. 지난 1월 31일 캐논코리아의 함께하는 캐논 행사 모습.

또하나 비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함께 일을 하면서 생기는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 Can Cell'의 천장에 스크린을 설치해 키보드 입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했다. 또한, 수화전문요원을 배치해 작업 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은 물론 개인적인 애로사항까지 상담해 주면서 장애인들이 조직생활에서 소외되거나 힘들어 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나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요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의식주나 교육 등의 지원보다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 속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인 사회공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 확대정책으로 I can

cell 1기부터 6기, 그리고 다른 본부의 인원까지 약 80여명의 장애인이 캐논코리아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생산직으로 당사의 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직무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캐논코리아를 보며 따뜻해져가는 날씨만큼이나 따뜻해져가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 TIP>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레이저복합기 MF4570dn

개발에서 생산까지 국내기술로 만들어 낸 레이저 복합기 MF4570dn은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모델로, 사무공간이 작고 동선이 짧은 중소기업 사무 환경에 적합한 컴팩트 디자인을 자랑한다.

A4사이즈의 문서는 1분에 25장으로 고속 출력하며, SOHO 용 제품이지만 3초대의 비즈니스급 스캔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MF4570dn은 출력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자동원고이송장치(ADF), 자동양면인쇄기능을 장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도 지원된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